

# 엄마



글 진완수(일산서구 탄현동)

엄마는  
나 모르게  
무얼 혼자만 잡수시나  
이따금 간식 주실 때  
번번이  
엄마는 배부르니  
너나 먹으렴 하신다

엄마는  
나 모르게  
낮잠 한숨 주무시나보다  
어두한 꼭두새벽  
나 여태 한잠인데  
엄마  
어느새 아침 준비 바쁘시다

정말  
배고프지 않으신가  
잠도 별로 없으시나  
긴가민가 알쏭달쏭  
베일에 가려진 듯  
신비스런 여인  
참 좋은 올 엄마

많이  
그립다

